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Time Use and Time Famine in Single-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Single-Mothers and Father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시간강사 박은정***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Kim, Oi-Sook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
Lecturer Park, Eun J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nd time famine between single-parent familie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time use surveys, that were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4. A total of 500 time diaries (168 from fathers, 332 from mothers) from single-parents aged between 20 and 59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t-test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ngle-parent families exhibit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nd subjective time famine. The single-mothers spend a significantly longer amount of time on housework and less time on leisure than do the single-fathers. The single fathers and mothers also differ in time use and time famine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working days on/off.

Key Words : 한부모가족 (single-parent family), 남성한부모 (single-father), 여성한부모 (single-mother), 시간사용 (time use), 시간부족감 (time famine)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 김외숙(E-mail: kimos@knou.ac.kr)

*** 교신저자 : 박은정(E-mail: dana060107@naver.com)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수는 2012년 1,796천 가구에서 2017년 현재 2,127천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9%에서 2017년 10.9%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7). 한부모가구의 구성은 모자가구(47.3%), 부자가구(19.8%), 모자와 기타가구(17.8%), 부자와 기타가구(15.1%) 순으로 나타나 모자가구가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27.8%의 아동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모·부자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빈곤한 상태에 있는 가족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9.6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430만원(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상황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산 및 부채, 소비지출행태 등을 연구한 다수의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보다 자산과 부채가 취약하고, 낮은 가구소득, 적은 지출, 주거불안정, 불안정한 근로조건 등의 생활실태를 보이며(김연우, 2012),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때 특히 모자가족의 경제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선강, 2014; 고선강, 2015; 고선강, 2018; 이성림, 2004; 양세정, 2005).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로 경제적 자원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시간자원과

관련해서도 빈곤한 상태이다. 빈곤이라고 하면 어떤 욕구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물질적 욕구를 중심으로 그 결핍상태인 빈곤을 개념화하고 있다(노혜진·김교성, 2010).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크게 금전자원과 시간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도 빈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측면이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축적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역할뿐 아니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등 양육자로서의 역할도 혼자 담당함으로써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때 생활시간배분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시간자원은 자녀의 시간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한 상태의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긴 노동시간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경우 성인보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자원관리학, 사회학, 가족학 등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시간자원을 중요하게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파악하고, 양부모가족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강기정, 2006; 김승권·송수진, 2001; 윤소영, 2013; 조영희, 2004), 한부모가족 자녀의 인터넷 사용과 TV시청 시간을 살펴보거나 가족형태가 청소년의 교육성취(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정규학습이외의 학습시간, 컴퓨터게임 시간, TV시청시간)와 관련된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김경년, 2010; 박민자·손문금, 2007)도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한부모가족 가구주 및 자녀의 생활시간구조 및 특성, 시간사용의 문제점이 밝혀져 왔다.

시간에는 인간이 하루 사용한 시간을 객관적 양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차원이 있고, 개인 자신

이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차원이 있다(김외숙, 2017).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시간사용의 객관적 차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차원인 시간부족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배우자 부재에 따라 보모역할을 혼자 담당해야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구주가 취업한 상태에서 노동편중의 시간배분이 이루어져 시간부족감을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부족감은 개인 및 가족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건강, 생활만족도 등의 심리적 및 신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Gunthorpe & Lyons, 2004; Robinson & Godbey, 1997; Roxburgh, 2004; Zuzanek, 1998; Zuzanek, 2004)에서 한부모가족이 인식하는 시간부족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실태에 대한 기술적 파악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실태와 이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을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으로 구분하여 취업여부, 취업자의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취업자의 시간사용을 근무일여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점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노동시간이 요일별로 정형화되지 못하는 면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도 2014년부터 취업자의 근무일여부 항목이 추가되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에 대한 실태 및 성별 차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실태

시간사용에 대한 기존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부모가족 또는 기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조영희(2004)는 1999년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한편 개별적인 사례면접을 병행하여 이들의 생활시간에 관련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은 18세 미만 큰 자녀를 둔 30, 40대로 한정하여 요일 및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족의 부모와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는 취업에 관계없이 양부모가족의 모보다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더 적었고, 한부모가족의 취업부는 양부모가족의 취업부보다 가정관리시간은 더 많았지만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노동시간은 한부모가족의 모가 양부모가족의 부와 모, 한부모가족의 부보다 많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1999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강기정(2006)은 한부모가족 중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혼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구조(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는 여성한부모의 경우 수입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은 남성한부모와 비슷하지만 가사노동시간(2시간 24분)은 남성한부모(1시간 3분)에 비해 더 길었고, 사회문화적 시간(5시간 33분)은 남성한부모(6시간 25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여성한부모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긴 점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았고,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한부모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특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또한 이혼 한부모가구주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8.25시간이며, 대부분 정기휴일을 갖지 못하고 '정해진 휴일 없이 쉬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윤소영(2013)은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생활시간을 비교하였다. 생활시간의 활동영역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및 기타로 구분하였고, 특히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세부 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시간의 배분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한부모가족은 노동시간은 길지만 상대적으로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적으며, 여가활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여성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노동시간량과 가족책임을 위한 시간 비율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에 할당하는 시간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에서 삶의 균형성이 가장 낮으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한부모의 여가활동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었던 반면 여성한부모의 여가활동은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영역에서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종교활동에서만 양부모가족의 부모들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량이나 시간배분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뿐 아니라 그 활동내용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을 주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김승권과 송수진(2001)은 1999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를 유배우자, 이혼, 사별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많은 점은 모든 혼인상태에서 동일하고,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어 이혼부인은 일에 5시간 15분(21.9%)을 할애하였으며,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각각 4시간 22분(18.2%), 6시간 7분(25.4%)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은 유배우부인은 가정관리(3시간 45분, 15.6%), 일(3시간 9분, 13.1%)이었고, 이혼부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4시간 19분, 18.0%), 가정관리(2시간 9분, 8.9%)였으며, 사별부인은 가정관리(2시간 38분, 11.0%), 일(2시간 35분, 10.8%)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부인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고, 사별부인은 대체로 노인이 많은 관계로 일을 하는 경우가 적으며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활동참여를 하는 이혼 및 사별부인이 유배우부인보다 미취학자녀 돌보는 시간이 약 1시간가량 적게 나타난 점에서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 시간부족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혼 및 사별가정의 부인은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배분이 결코 여의치 않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사별부인의 경우 다른 혼인상태의 집단보다 연령이 많은 노인이 포함되었으며, 시간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업여부를 통제하지 않아 이들의 연구는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5)가 한부모가족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 하루 평균 30분~1시간 미만(33.7%)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하루 30분 미만(30.6%)이 가장 많아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의 연령이 많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적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모자가족보다는 부자가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와의 여가활동 역시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년간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으로는 외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쇼핑이 많았으며, 영화 및 공연관람이나 박물관 등 관람, 여행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빈도는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를 둔 경우에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생 이상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및 여가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외에서는 한부모가족 가족주의 자녀양육시간이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시간사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Kalenkoski, Ribar, & Stratton, 2006; Mencarini, Pasqua, & Romiti, 2014; Raymo, Park, Iwasawa, & Zhou, 2014). Kalenkoski et al.(2006)은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지적 및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의 2003년~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영국의 2000년~2001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을 가족구조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들은 가족구조를 한부모가족, 동거, 양부모가족으로 나눈 후 성별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분석하였다. 주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여성의 경우 평일 및 주말 자녀양육시간이 동거여성, 한부모여성, 양부모여성 순으로 점차 많았으나 남성은 평일의 경우에는 한부모남성, 양부모남성, 동거남성 순으로 많은데 비해 주말에는 양부모남성, 동거남성, 한부모남성 순으로 나타나 요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은 여성의 경우 평일 자녀양육시간이 동거여성, 한부모여성, 양부모여성 순으로 적어졌으며, 주말에는 동거여성, 양부모여성, 한부모여성 순으로 적어졌다. 남성의 경우에는 평일

한부모남성의 자녀양육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부모남성, 동거남성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동거남성, 양부모남성, 한부모남성 순으로 나타나 가족구조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이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유하는 식사는 자녀의 복지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Musick & Meier, 2012; 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Raymo et al.(2014)은 2011년 일본의 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의 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들은 여성한부모는 양부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빈도 및 공유시간이 더 적다고 밝혔다. 여성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긴 노동시간과 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다고 보았다. Raymo(2014)는 일본 여성한부모의 일-가정 갈등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일-가정 갈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여성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노동환경, 특히 긴 노동시간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한부모의 일-가정 갈등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건강문제와 낮은 학업성취,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시간사용과 관련해 볼 때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Mencarini et al.(2014)는 이탈리아의 가족구조와 아동의 시간사용을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양부모가족의 아동보다 학습시간과 독서시간이 더 적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족의 노동시간은 자녀의 학습과 독서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시간사용에 가족구조(양부모, 한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한부모가족과 살고 있는 이탈리아 아동의 인적 자본 투자와 관련된 활동(학습시간과 독서시간)에 대한 지원과 아동의 복지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구조 및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점에는 의미가 있

나 양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시간사용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부와 모, 취업여부에 따라 양부모가족과 비교분석을 하였고, 이혼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배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한부모가족의 분석대상자를 이혼 한부모가족으로 제한하거나 혼인상태별 분석에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사별의 경우 노인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취업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제한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부와 모로 구분한 후 취업여부 및 취업자의 근무일여부로 세분하여 시간사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한부모가족의 시간부족감

시간부족감과 관련된 연구는 시간부족감의 실태를 살펴보거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시간부족감의 연구대상으로는 기혼여성, 취업자,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등(김외숙, 2012; 김진옥·고은주, 2015; 박은정·이성림, 2013; 송혜림·김유경·김주희, 2017; 주익현, 2015; 전지현, 2015; 차승은, 2010; 차승은, 2011; 차승은, 2015)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집단은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시간부족의 지각이 클 뿐 아니라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자녀양육시간 증가는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 확보의 어려움뿐 아니라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Burchardt(2008)는 경제적 빈곤과 대칭된 시간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노동시간, 자녀 유무, 소득, 가족구조(양부모, 한부모)

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Merz & Rathjen (2009)도 독일의 2001년과 2002년의 시간일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시간의 빈곤 차원을 살펴본 결과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시간과 소득에 대한 빈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양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가정 내 자녀수가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녀수의 증가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취업자의 경우 시간부족으로 인해 시간결핍을 지각하는 비율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소득과 시간의 두 차원에서 모두 빈곤한 상황은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대졸집단, 25~44세 연령 집단, 사업가, 주당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인 집단 등이 시간빈곤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밝혀 시간빈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는 경제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시간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경우 노동자이면서 양육자의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간부족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김승권과 송수진(2001)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시간부족을 살펴본 결과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부인이, 이혼부인보다는 유배우부인이 시간부족을 현저하게 많이 느끼고 있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경제활동 미참여 부인보다 시간부족을 심하게 나타내었다. 경제활동참여자의 경우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유배우부인(83.7%), 이혼부인(82.5%), 사별부인(62.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별한 여성의 경우 노인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간부족감은 이혼 및 유배우부인보다 다소 비율이 낮았다. 또한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주된 이유를 경제활동 참여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자의 경우 '일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별부인(76.4%), 이혼부인(66.6%), 유배우부인(59.9%)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미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라고 한

경우가 유배우부인(70.3%), 사별부인(52.5%), 이혼부인(35.1%)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활동 미참여 이혼부인(31.1%)은 시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인상태별 시간부족감 수준과 그 이유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강기정(2006)은 이혼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여 시간에 대한 인식(시간부족, 부족이유 및 여유시간, 여유시간 부족이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약3/5(58.3%)정도가 항상 내지는 가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부족감 이유는 일 때문(59.1%)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자녀양육과 집안일(14.7%), 교제 및 사회활동(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여유시간이 있다하더라도 대다수 한부모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7.4%) 적극적으로 여유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피곤하거나 아파서(20.8%),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2.5%), 여유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10.9%) 등으로 한부모들의 건강문제와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차승은(2011)은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상태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무배우자취업여성(이혼 및 사별의 경우)이 유배우자취업여성보다 시간부족인식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배우자 없이 가족역할과 취업역할을 병행해야하는 경우 평상시에 시간압박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배우자취업남성에 비해 더 취약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시간부족감 지각은 높은 수준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부족감의 연구는 강기정(2006)의 이혼 한부모들의 시간인식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와 혼인상태를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여 시간부족감의 차이 및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김승권·송수진, 2001; 차승은, 2011)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고찰은 기혼여성, 취업자, 맞벌이부부 등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여부와 노동시간, 요일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성별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부족감이 높다는 연구(김진옥·고은주, 2015), 집단에 따라 차이여부가 혼재한다는 연구(송혜림 외, 2017), 취업자의 경우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유의한 수준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김외숙 외, 2016)와 같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손문금(2004)은 이혼부담과 시간갈등을 겪고 있는 맞벌이부부를 시간부족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시간부족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부족인식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으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또는 가끔 느끼는 경우가 남성(80%)에 비해 여성(약 87%)의 시간부족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익현(2015)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부인의 시간부족감이 높다는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취업남녀를 대상으로 한 차승은(2011)은 취업여성(87.6%)의 시간부족인식이 취업남성(83%)보다 높다고 보고해 여성의 시간부족감은 남성보다 높은 것을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의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취업여부는 시간부족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표적인 변수 중의 하나이다. 차승은(2015)은 21~55세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간압박감과 관련요인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이 높는데, 종종 느끼거나 시간압박감을 항상 느끼는 경우가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서 거의 3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특히 기혼취업여성은 비취업자보다 시간부족감을 더 지각하게 되는데,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총노동시간은 이중노동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취업여부 자체와 취업에 따른 노동시간의 과다가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시간노동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그리고 맞벌이 부부 집단에서도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남성장시간 근로집단 및 그 배우자집단의 주관적 시간부족감을 살펴본 연구(송혜림 외, 2017)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남편의 장시간 근로(52시간)는 결과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부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장시간 근로집단의 이중노동 부담을 확인해 준다. 김진옥과 고은주(2015)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 및 무급노동시간의 부담이 커질수록 모든 차원의 시간결핍과 시간압박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주익현, 2015)에서는 남편의 경우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에는 둔감하지만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시간부족을 느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시간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남편의 경우 아내에게 아내로서의 시간사용을 기대하고 있고, 여성 본인은 아내로서의 시간사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지현(2015)도 취업모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한다고 밝혀 노동시간은 시간부족감을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다수의 연구에서 일치된다.

요일 변수를 보면, 차승은(2011)은 시간부족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남성은 일요일에 비해 평일이나 토요일에, 취업여성은 일요일에 비해 평일에 지각하는 시간부족인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전지현, 2015)에서도 평일인 경우보다 주말일 때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일에 따라 시간부족감이 영향을 받는 점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요일 자체보다 근무일여부에 따라 시간사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일변수 대신에 근무일여부에 따라 시간부족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별, 취업여부 및 노동시간, 요일 외에도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녀수와 미취학자녀유무 등 자녀관련변수, 학력, 소득 등이 보고되어 왔다. 여성취업자가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대표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혼취업여성과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성 또는 여성 단독으로 한 가족의 운영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양부모가족보다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여성한부모의 경우 취업률이 양부모가족보다 높은 점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간부족감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들의 시간부족 실태를 분석하거나 혼인상태의 한 유형으로 한부모가족이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취업여부 및 취업자의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의 시간부족감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시간사용은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취업여부, 근무일여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비농가 한부모가족의 시간일지와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주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와 미혼자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생활시간은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으로 대분류하였고, 필수생활시간은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로 중분류하였으며, 의무생활시간은 노동, 가사노동, 학습으로, 여가시간은 참여봉사, 교제, 미디어, 종교, 문화관광, 스포츠, 기타여가로 중분류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시간부족감은 생활시간조사에서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된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시간부족감이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4점)부터 항상 여유있다는 느낌(1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처리하였다. 시간부족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이용하였다.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부모가족 중 여성한부모는 66.4%이고, 남성한부모는 33.6%로 여성한부모가족의 비율이 2/3를 차지하였다.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는 학력 및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한부모가구주는 약 8할이 취업하고 있고 대졸이상이 약 3할이 되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남성한부모는 40대의 연령이 절반을 차지하고, 50대(20.2%), 30대(15.5%), 20대(14.3%) 순으로 높았고, 직업은 단순노무직 등의 집단이 절반(49.3%) 정도로 높은데 비해 사무직 종사자 집단(10.4%)의 비율은 낮은 특징이 있었다. 개인 월평균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집단의 분포가 40.5%를 차지하였고, 10세미만 자녀가 없는 집단이 85.7%를 보였으며, 근대적 성역할태도(65.5%)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여성한부모를 보면, 30대와 40대의 연령 집단이 8할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1/3(36.6%)이상이었고, 단순노무직 등(24.6%) 및 사무직(23.2%) 종사자가 20%대의 분포를 보였다. 개인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의 분포가 77.1%로 나타났고,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집단은 1/4(24.1%) 정도로 나타났으며, 근대적 성역할태도 집단이 78.3%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IV. 연구결과

1.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시간사용 차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시간사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여부(취업자, 비취업자)와 근무일여부(근무일,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부모 (N=500)		남성한부모 (N=168)		여성한부모 (N=332)		X ² / t
	N	%	N	%	N	%	
성별	남성	168	33.6	-	-	-	-
	여성	332	66.4	-	-	-	-
연령	20-29	52	10.4	24	14.3	28	8.4
	30-39	104	20.8	26	15.5	78	23.5
	40-49	272	54.4	84	50.0	188	56.6
	50-59	72	14.4	34	20.2	38	11.4
	M(SD)	41.38	8.17	41.65	9.09	41.23	7.68
학력	중학교	50	10.0	22	13.1	28	8.4
	고등학교	302	60.4	98	58.3	204	61.4
	초대졸이상	148	29.6	48	28.6	100	30.1
직업	관리전문직	60	14.4	16	11.9	44	15.5
	사무직	80	19.1	14	10.4	66	23.2
	서비스판매직	142	34.0	38	28.4	104	36.6
	단순노무직 등	136	32.5	66	49.3	70	24.6
개인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30	26.0	40	23.8	90	27.1
	200만원 미만	226	45.2	60	35.7	166	50.0
	300만원 미만	82	16.4	38	22.6	44	13.3
	300만원 이상	62	12.4	30	17.9	32	9.6
취업여부	취업	418	83.6	134	79.8	284	85.5
	비취업	82	16.4	34	20.2	48	14.5
근무일여부	근무	322	77.0	101	75.4	221	77.8
	비근무	96	23.0	33	24.6	63	22.2
자녀 유무	10세미만	396	79.2	144	85.7	252	75.9
	유	104	20.8	24	14.3	80	24.1
성역할 태도	전통적	130	26.0	58	34.5	72	21.7
	근대적	370	74.0	110	65.5	260	78.3

*p<.05, **p<.01, ***p<.001

1)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취업한 경우를 보면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시간에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진 데 비해 필수생활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활동을 보면, 필수생활시간 중에서는 기타개인관리활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여성이 남성보다 19분 더 많았다. 의무생활시간은 남성은 평균 432분, 여성은 평균 492분으로 여성의 의무생활시간이 1시

간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점과 연관된다. 여가시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시간정도 더 많은데 이는 미디어와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주로 기인한다. 여가활동 중 스포츠와 종교에서도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스포츠는 남성이, 종교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그 차이는 10분 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취업한 한부모를 분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분류 영역은 여가시간이었고 중분류 활동 중에서는 식사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구분	취업자			t	비취업자			t
	남성 (N=134)	여성 (N=284)	차이		남성 (N=34)	여성 (N=48)	차이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61.57	662.57	-1.0	.080	689.12	716.25	-27.13	1.116
수면	482.24	465.46	16.78	1.287	515.29	514.58	0.71	.033
식사 및 간식	111.27	110.21	1.06	.234	98.82	120.00	-21.18	2.244*
기타개인관리	68.06	86.90	-18.84	5.166***	75.00	81.67	-6.67	.612
의무생활시간	431.87	491.87	-60.00	2.829**	214.71	288.75	-74.04	1.670
노동	355.22	331.69	23.53	.987	11.47	1.46	10.01	1.157
학습	4.10	.60	3.50	1.148	132.06	9.38	122.68	2.922**
가사노동	72.54	159.58	-87.04	8.873***	71.18	277.92	-206.74	7.943***
여가시간	225.67	167.01	58.66	3.538**	463.82	346.46	117.36	2.668*
참여봉사	.67	.67	.00	.004	.00	.00	.00	-
교제	30.60	36.37	-5.77	1.244	40.88	42.92	-2.04	.194
미디어	128.81	91.73	37.08	2.970**	257.94	211.46	46.48	1.403
종교	1.27	8.52	-7.25	2.838**	10.88	19.17	-8.29	.643
문화관광	2.76	3.87	-1.11	.492	4.41	8.54	-4.13	.482
스포츠	20.67	11.02	9.65	2.179*	28.24	29.38	-1.14	.091
기타여가	40.90	14.82	26.08	4.388***	121.47	35.00	86.47	3.192**

*p<.05, **p<.01, ***p<.001

및 간식, 학습, 가사노동, 기타여가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과 학습시간의 경우 두 집단간 시간량 차이가 가장 컸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3.9배 많았고, 남성의 학습시간은 여성에 비해 14배 많았다. 여성과 비교할 때, 남성의 여가시간은 117분 더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 외에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 및 간식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의 성별 차이를 정리하면, 남성과 여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 여가시간, 기타여가활동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는 취업자는 2.2배, 비취업자는 3.9배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취업자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큰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는 취업 집단에서 59분, 비취업 집단에서 117분으로 남성이 더 많으며 그 차이도 비취업

집단에서 더 컸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타여가활동에서도 취업과 비취업 집단에서 각각 26분, 86분의 차이를 보여 비취업 집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취업 집단에서 여성의 기타개인관리와 종교활동시간이, 남성의 미디어와 스포츠시간이 각각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취업 집단에서는 남성의 학습시간이 더 많은 데 비해 여성의 식사 및 간식시간이 많은 점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 집단에서 한부모 남성과 여성이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활동의 종류는 많으나 차이의 시간량은 전반적으로 적다. 이는 취업자의 경우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이 매우 많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취업자의 경우라도 근무일여부에 따라 활동별 시간사용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만을 대상

으로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먼저 근무일을 보면,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분류 영역은 여가시간이었고, 중분류 활동에서는 기타개인관리, 노동, 가사노동, 기타여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의 경우 기타개인관리에서만 유의한 시간량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의무생활시간 중에서는 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동시간에서는 남성이 47분 더 많은 반면 가사노동에서는 여성이 70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여가시간은 남성이 더 많았는데, 이는 기타여가에 사용한 시간이 더 많은 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비근무일을 보면, 대분류 영역에서는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시간에서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중분류 활동 중에서는 수면, 기타개인관리, 가사노동, 미디어, 종교, 스포츠, 기타여가에서 차이

를 나타내었다. 특히, 의무생활시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2배이상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시간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디어, 스포츠, 기타 여가활동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점과 연관된다. 그 외에 남성의 수면시간이 1시간이상 여성보다 더 많은 반면 여성은 기타개인관리와 종교활동시간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취업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타개인관리, 가사노동, 여가시간, 기타여가시간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진 근무일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특히 여성은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2.2배 많았다. 반면 남성이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여성에 비해 근무일에는 2.2배, 비근무일에는 4배 더 많았다. 근무일과 비교할 때 비근무일에는 양성 모두 노동시간이 대폭 감소한 반면 남

〈표 3〉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구분	근무일				비근무일			
	남성 (N=101)	여성 (N=221)	차이	t	남성 (N=33)	여성 (N=63)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21.49	636.56	-15.07	1.406	784.24	753.81	30.43	.848
수면	439.01	442.67	-3.66	.379	614.55	545.40	69.15	2.039*
식사 및 간식	111.09	106.20	4.89	1.013	111.82	124.29	-12.47	1.152
기타개인관리	71.39	87.69	-16.30	3.964***	57.88	84.13	-26.25	2.390*
의무생활시간	532.08	552.22	-20.14	1.322	125.15	280.16	-155.01	5.474***
노동	471.09	424.16	46.93	2.960**	.61	7.30	-6.69	1.813
학습	3.66	.77	2.89	.794	5.45	.00	5.45	1.000
가사노동	57.33	127.29	-69.96	8.416***	119.09	272.86	-153.77	5.479***
여가시간	159.60	131.40	28.20	2.458*	427.88	291.90	135.98	3.643**
참여봉사	.00	.27	-0.27	.908	2.73	2.06	0.67	.249
교제	27.82	32.53	-4.71	.939	39.09	49.84	-10.75	.988
미디어	86.44	71.04	15.04	1.808	258.48	164.29	94.19	2.836**
종교	1.68	4.12	-2.44	1.381	.00	23.97	-23.97	2.505*
문화관광	.00	.41	-.041	.675	11.21	16.03	-4.82	.527
스포츠	10.59	8.60	1.99	.654	51.52	19.52	32.00	2.391*
기타여가	33.07	14.43	18.64	3.449**	64.85	16.19	48.66	2.852**

*p<.05, **p<.01, ***p<.001

성의 경우 비근무일에 수면(176분), 미디어(172분), 가사노동(62분), 스포츠(41분), 기타여가활동(32분)에 사용한 시간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146분), 수면(103분), 미디어(93분), 종교활동(20분)에 사용한 시간이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2.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시간부족감 차이

1)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 차이

시간부족감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평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단일문항을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성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취업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시간부족감은 각각 2.91점, 3.20점으로 여성의 시간부족감이 더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시간부족감은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자의 경우 남성은 2.12점, 여성은 2.25점의 시간부족감을 보여 여성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 차이

근무일의 시간부족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 3점 이

상을 보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여성의 시간부족감이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표 5 참조>). 비근무일의 경우 시간부족감 평균이 남성이 2.52점, 여성이 3.24점으로 0.73점의 큰 차이를 보여 취업 여성한부모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

근무일 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을 보면 남성의 경우 근무일(3.04)보다 비근무일(2.52)이 낮은 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근무일(3.19)보다 비근무일(3.24)이 더욱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였다. 취업 여성한부모의 경우 근무일여부에 관계없이 3점 이상의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이고 특히 비근무일에는 더욱 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에 따라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결과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는 특정 활동의 시간사용에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부족감은

<표 4>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 차이

구분	남성		여성		차이 M	t	
	M	SD	M	SD			
취업여부	취업	2.91	.79	3.20	.76	-0.29	3.652***
	비취업	2.12	.98	2.25	.73	-0.13	

***p<.001

<표 5>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 차이

구분	남성		여성		차이 M	t	
	M	SD	M	SD			
근무일여부	근무일	3.04	.73	3.19	.76	-0.15	1.740
	비근무일	2.52	.83	3.24	.76	-0.73	

***p<.001

취업자의 비근무일에서만 차이를 나타내는 점을 밝혔다.

필수생활시간은 취업여부 및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성별 차이가 없고, 필수생활시간 중 기타개인관리시간은 취업 여성이 근무일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남성보다 더 많은데 비해 식사 및 간식시간은 비취업 남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더 많고 취업 남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더 많고 취업 남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 의무생활시간은 취업 여성이 취업 남성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성차는 근무일이 아닌 비근무일에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과 비취업 남성간의 의무생활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무생활시간의 차이는 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점에 기인하는데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는 비취업자(207분, 3.9배)가 많지만 취업자(87분, 2.2배)의 경우에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근무일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많고, 비취업 남성의 학습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으로 10분이 되지 않는 여성에 비해 14배 이상 많은 점이 특이하다. 여가시간은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갖는다. 여가시간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활동을 보면 기타여가는 취업여부, 근무일여부를 불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며, 그 외 미디어와 스포츠는 취업 남성이 취업 여성보다 비근무일에 더 많이 하는 활동이며, 종교는 취업 여성이 취업 남성에 비해 비근무일에 더 많이 하는 활동이다.

한부모가족의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집단은 비근무일의 취업 남성과 여성이다. 취업자의 경우 남성도 평균 이상(2.91)의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였지만 여성(3.20)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부족감을 보였고, 근무일에는 양성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이지만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데 비하여 비근무일의 경우 여성은 근무일보다 비근무일에 더 높아지는데 비하여

남성은 근무일보다 비근무일에 더 낮아져 성별 차이가 확대되어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사이에는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크다.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여성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한부모보다 훨씬 많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강기정, 2006; 윤소영, 2013; 조영희, 2004)에서 이미 밝혀진 점이며,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한부모가족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양부모가족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이다(김소영·진미정, 2016; 김외숙·이기영, 2015; 김외숙 외, 2016; 이승미·이현아, 2011; 한영선·윤소영, 2009).

한부모가족의 가사노동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8할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활동에 대한 시간부족을 야기하여 건강, 가족기능, 생활만족도 등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시간 자체가 노동을 잘 하기 위한 회복적인 기능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하여 담보해 주지는 않으나 과도한 총노동시간은 생활시간의 균형적 배분을 불가능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부모의 역할과중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사회·정책적 지원방안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개별 가족의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가사지원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돌봄지원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관리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는 주거관리, 식생활, 청소 및 정리 등의 영역별로 프로그램이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한부모의 경우 상당히 적은 가사노동시간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녀의 가사노동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본 연구대상인 남성한부모의 경우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가사노동시간이 여성한부모와 비교했을 때 시간량이 작다. 서울시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문은영·김보람, 2010)에서 가구의 가사 및 육아 도움을 받는 시간이 부자가족의 경우 모자가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남성한부모의 경우 가구원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남성한부모의 자녀돌보기시간을 포함한 총가사노동시간이 적은 점은 자녀의 성장발달 및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형성, 전반적인 가정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는 문은영과 김보람(2010)의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운 점으로, 자녀와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자가족의 경우 가사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로 밝혀진 점(조영희, 2004) 등을 고려하여 남성한부모의 가사수행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사이에 총여가시간의 차이가 크다. 취업여부, 근무일여부와 무관하게 남성한부모의 여가시간이 여성한부모보다 일관되게 더 많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기정, 2006; 윤소영, 2013; 조영희, 2004)와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외숙·이기영, 2015; 김외숙 외, 2016; 이승미·이현아, 2011; 한영선·윤소영, 2009)에서도 이미 밝혀진 점이다. 한부모가족의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점은 여성한부모의 여가시간이 남성에 비해 적은 점이다. 여가시간 자체가 생활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적정수준의 여가시간 확보가 일·생활균형의 기본전제가 된다고 볼 때 취업 여성한부모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에서 살펴본 가사노동지원 방안들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한부모의 경우 여성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지만 미디어와 기타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활동에 편중된 여가시간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여가시간은 종교나 TV시청에 편중된 경향이 강하고 교제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휴일의 경우에도 가족여가활동이 적으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조영희, 2004; 윤소영, 2013)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남성한부모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와 가족여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유형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적극적 여가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여가역량개발 교육과 함께 여가프로그램 참여기회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여가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비취업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사이의 학습시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의 학습시간은 평균 2시간 이상으로 여성보다 현저히 많다. 학습참여 비율을 보면, 남성(7.7%)이 여성(1.5%)보다 5.1배 많고, 학습에 참여한 남성의 경우 요일평균 388분, 여성의 경우에는 124분으로 시간량 차이가 3배이상이다. 학습시간은 비취업자의 학원수강, 방송 및 인터넷 수강, 스스로 학습 등과 같은 학교외학습활동에 사용한 시간임을 감안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을 위한 준비,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전적 모습 등 미래에 대한 생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한부모의 자립 및 직장 취업 등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가족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별 자립 및 자활에 효과적인 내용을 조사한 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적 방안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 여성한부모의 경우 비근무일에 가장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이며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비취업 남성은 취업남녀, 비취업 여성보다 시간부족감이 낮다. 취업자의 근무일 시간부족감은 양성 모두 3점대로 비근무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김진옥과 고은주(2015)는 노동

시간이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혜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장시간근로여부에 따라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김의숙 외(2016)는 취업자의 경우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부족감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무일에 성차를 보이지 않는 본 연구결과는 근무일의 경우 양성 모두 노동을 하기 때문에 성별 차이없이 시간부족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근무일에는 시간부족감에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남성의 경우 비근무일에 여가시간을 많이 증대시키는 데 비하여 여성한부모는 근무일에 비해 2배이상의 가사노동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의 시간부족감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취업 남성한부모가 취업 여성한부모보다 시간부족감이 유의하게 낮지만, 그 수준이 평균이상인 2.91이라는 점에서 취업자는 성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심각한 시간빈곤현상은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이영호, 2015)에서도 보고되었는데 한부모가족은 시간빈곤으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수면부족, 자녀와의 시간부족을 경험하며 자녀양육 및 가정관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부모 가꾸주는 혼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고, 지역별 추가지원의 경우 자립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 주거와 질병치료비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부모생활 코디네이터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안산시의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는 한부모 당사자에게 시간을 줌으로써 직접 육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시간자원의 지원이 대기업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대상이 양부모 맞벌이 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집단 특성에 맞추어 정책적 방안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이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여부와 근무일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여성한부모에 비해 긴 남성한부모의 학습시간과 비근무일 남성한부모에 비해 여성한부모의 높은 시간부족감 등 특징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가족자원관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주로 양부모를 대상으로 시간연구가 이루어져 온 점에서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면서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 점에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14년 국민생활 시간조사에서부터 근무일여부 변수가 포함된 점을 활용하여 취업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을 근무일여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시간연구를 진행한 점에서도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양부모가족과 비교하는 연구,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에 대한 시계열 비교연구, 활동별 시간량과 시간부족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10세미만 자녀유무 등 자녀변수를 포함하여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 등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모의 시간사용이 자녀의 시간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공유시간 분석 등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2) 고선강(2015). 부모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95-120.
- 3) 고선강(2018).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99-118.
- 4) 강기정(2006). 이혼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 구조 분석과 가족복지 대책. 진리논단, 13, 11-28.
- 5) 김경년(2010). 한부모가족 자녀의 인터넷과 TV이용이 학업성취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0(4), 27-54.
- 6) 김소영 · 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7) 김승권 · 송수진(2001).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1(1), 67-105.
- 8) 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50-59.
- 9) 김외숙(201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33-152.
- 10) 김외숙 · 이기영(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1) 김외숙(2017).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2004년과 2014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35-59.
- 12) 김외숙 · 송혜림 · 조희금 · 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 13) 김진욱 · 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14) 노혜진 ·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15) 문은영 · 김보람(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16) 박민자 · 손문금(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17) 박은정 · 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18)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 인식. 여성연구, 2, 159-198.
- 19) 송혜림 · 김유경 · 김주희(2017).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 및 그 배우자집단의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43-59.
- 20) 여성가족부(2015).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1) 이승미 ·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22)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

- 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23) 이영호(2015).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7-168.
 - 24) 양세정(2005).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행태 비교. 사회과학연구, 20, 1-20.
 - 25) 윤소영(2013).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실태분석: 행복한 생활을 위한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18.
 - 26) 주익현(2015). 계층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사회과학논문, 46(1), 111-135.
 - 27)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 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28) 전지현(2015).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및 시간부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30) 차승은(2011).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31-151.
 - 31) 차승은(201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감과 관련요인의 차이: 아내의 시간, 남편의 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5), 37-53.
 - 32) 통계청(2015).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통계청.
 - 33)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통계청.
 -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5) 한영선 · 윤소영(2009).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36) Burchardt, T.(2008). Time and income poverty.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Case Report, 57.
 - 37) Gunthrope, W., & Lyons, W.(2004). A predictive model of chronic time pressure in Australian population: Implications for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 26, 201-213.
 - 38) Kalenkoski, C, M., Ribar, D. C., & Stratton, L, S.(2006).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s' child care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ZA Discussion Paper No. 2441. 1-44.
 - 39) Mencarini, B. L., Pasqua, S., & Romiti, A.(2014). Children's time use and family structure in Italy. Families And Societies: Working Paper Series, 21, 1-32.
 - 40) Merz, J., & Rathjen, T.(2009). Time and income poverty: An interdependent multidimensional poverty approach with German time use diary dat. IZA DP No. 4337, 4-31.
 - 41) Musick, K., & Meier, A.(2012). Assessing causality and persistence in associations between family dinners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 476-493.
 - 42) Raymo, J. M.(2014). Single motherhood and work-family conflict in Jap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Sociology, 1-29.
 - 43) Raymo, J. M., Park, H., Iwasawa, M., & Zhou, Y.(2014). Single motherhood, living arrangements, and time with children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843-861.
 - 44) Robinson, J. 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45) Roxburgh, S.(2004). There just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s: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 of time pres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2), 115-131.

- 46) Zick, CD., Bryant, WK., & Österbacka, E. (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 47) Zuzanek, J. (1998). Time use, time pressure, personal stress,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from a life cycle perspectiv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5(1), 26-39.
- 48) Zuzanek, J. (2004). Work, leisure, time-pressure and stress. In J. T. Haworth., & A. J. Veal (Eds.), *Work and Leisure*, PP. 123-144. London: Routledge.

- 투 고 일 : 2018년 06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7월 07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8월 13일